

목포시사

무·선·무·악

2 예향 목포

문화예술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다·작·무·악

2 예향 목포

문화예술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목포진 수군 교대식



목포진 풍물놀이



목포근대역사관 1관(옛 일본 영사관)



목포근대역사관 2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목포대교 야경



이훈동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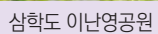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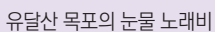
성옥기념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삼학도 카누



목포 요트마리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목포박물관



옥공예전시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1	2
3	4
5	6
7	8
9	

목포9미(味)

- 1 1미 세발낙지
- 2 2미 홍어삼합
- 3 3미 민어회
- 4 4미 꽃게무침
- 5 5미 갈치조림
- 6 6미 병어회(쌈)
- 7 7미 준치무침
- 8 8미 아구탕(쌈)
- 9 9미 우럭간국

| 일러두기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구성

- 제1권 「항도 목포」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형성과정, 해운항만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목포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정리하였다. 목포의 공간적 특징과 그 안에서 전개된 역사·문화의 배경,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권 「예향 목포」는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대중가요·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과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목포 정신문화의 전개 과정과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권 「일등 목포」는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사회, 복지 및 의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포 지역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형성·발전·변화 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목포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4권 「터전 목포」는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토박이들의 이야기와 마을 유래, 그리고 목포의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목포시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목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정리했다.
- 제5권 「기록 목포」는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와 목포 관련 문헌·사진·물증자료 등의 역사 자료로 구성하였다. 역사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알리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훗날의 사료가 되도록 했다.

서술 범위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부터 목포시사 편찬을 시작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하한 범위로 하되, 주제별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자료까지 반영하였다.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자료 이용 시 주의 사항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저작권은 목포시에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작·소장한 사진 등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목차

contents



개관

'예향(藝鄕) 목포'의 문화사	23
1. 이래서 '예향'	23
2. 예향 목포의 뿌리	25
3. 예향 본색 - 목포문화협회 시대	29
4. 예총과 목포의 예술	31
5. 오거리와 다방 문화	33
6. 위기의 예향 - '말로만' 예향	35
7. 지방에서 예술하기	38
8. 갯바위 문화의 거리	43
9. 예향을 예향답게	44

제1편 목포의 문화예술

제1장 목포 문학	49
제1절 목포 문학의 흐름과 활동	49
제2장 공연 예술	103
제1절 목포 음악계의 흐름과 활동	103
제2절 목포 연극계의 흐름과 활동	121
제3절 목포 무용계의 흐름과 활동	154
제4절 목포 한국음악(국악)의 흐름	170
제5절 목포 노래, 목포 가수	185
제6절 목포의 극장과 동춘서커스	203
제7절 마당극을 통한 목포민속예술의 발현과 의미	219

제3장 시각예술	229
제1절 20세기 이후 목포 미술의 흐름	229
제2절 목포 조각계의 흐름과 활동	251
제3절 목포 서예계의 흐름과 활동	270
제4절 목포 사진계의 흐름과 활동	279

제2편 목포의 관광·체육

제1장 목포 관광의 변천 과정	311
제1절 근대 개항 이후 목포관광	311
제2절 해방 이후 목포관광	315
제3절 1960~1970년대 목포관광	315
제4절 1980~1990년대 목포관광	319
제5절 2000년대 이후 목포관광	321
제2장 목포 관광의 현장	329
제1절 항구도시로의 여행	329
제2절 골목길	343
제3절 향도의 축제와 문화행사	354
제3장 서남권 관광 허브, 목포	399
제1절 목포관광의 현실과 가능성	399
제2절 목포관광을 둘러싼 대외 여건	401
제3절 목포관광의 발전 잠재력	404
제4절 미래 목포관광의 발전과제	406



목차

contents



제4장 목포 체육의 역사적 흐름	411
제1절 목포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411
제2절 목포 생활체육	422
제3절 목포 스포츠산업	428

제3편 목포의 민속

제1장 민속 개요	439
제1절 목포의 민속 개요	439
제2장 목포의 방언	445
제1절 하다/허다	445
제2절 대불이다	446
제3절 씨압소	447
제4절 '건지'와 '가심'	448
제5절 바닷가 지형	448
제6절 '모치'와 '송에'	450
제7절 대명사 '그삼네'와 '그미'	451
제8절 접미사 '-수'	452
제9절 접미사 '-니'	453
제3장 목포 사람들의 생활민속	455
제1절 목포 사람들 삶 살이	455
제2절 목포 사람들 옷 민속	456
제3절 목포 음식 민속	459
제4절 목포 사람들 주거 민속	464

제4장 목포의 설화	469
제1절 영달산(靈達山)	470
제2절 유달산 노적봉	470
제3절 유달산의 장수	472
제4절 유달산 호랑이	472
제5절 유달산 미륵불	473
제6절 유달산 아불과 부동명왕, 홍법 대사, 유달산신	473
제7절 유달산의 풍수와 바위 이야기들	473
제8절 달성사 옥정(玉井)	474
제9절 유달산 보광사 짓샘	475
제10절 유달산 해봉사	475
제11절 갯바위 전설	476
제12절 고하도의 탕건바위(쥐바위, 북바위)	477
제13절 보리 마당	479
제14절 삼학도(三鶴島)의 내력	479
제15절 앞산과 뒷산의 민속놀이 이야기	480
제5장 목포의 생산 풍속	483
제1절 고기잡이와 관련된 세 가지 구성 요소들	483
제2절 목포의 세 군데 포구와 특징들	484
제3절 조선소의 풍경	487
제4절 그물 제작과 수리, 고기 잡는 풍경	488
제5절 선구점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 풍경	491
제6절 선주와 선장, 선원들의 생활사	494



목차

contents



제6장 목포 사람들의 일생의례	499
제1절 출생의례	500
제2절 성년식(관례)	504
제3절 결혼의례(혼례)	505
제4절 수연례	508
제5절 상례	509
제6절 제례	511
제7장 민속신앙	515
제1절 민속신앙에 대한 기억과 기록	515
제2절 무속 담당자의 활동, 당골과 점쟁이	517
제3절 바다의례의 여러 양상, 혼건지기·벋고사·풍어굿	523
제8장 민속놀이	531
제1절 세시놀이	532
제2절 평시놀이	540
제3절 공연화 된 민속놀이	542

제4편 목포의 종교

제1장 불교의 목포 전래와 성장	553
제1절 근대의 불교	553
제2절 현대의 불교	570
제2장 천주교의 목포 전래와 확산	581
제1절 한국천주교 전래	581
제2절 목포 천주교회의 설립	594

제3장 목포의 개신교 수용과 성장	609
제1절 복음의 시작부터 해방까지(1894~1945)	609
제2절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1945~2017)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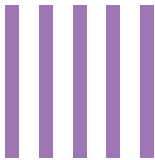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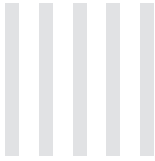
제5편 목포의 교육

제1장 목포 개항과 근대 교육 제도의 도입	647
제1절 목포의 근대 학교 설립	650
제2절 개화기 목포의 사립학교 확대와 쇠퇴	658
제3절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교육운동과 일제의 억압	661
제4절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목포 교육의 특징	675
제2장 해방 이후 목포 현대 교육의 특징	679
제1절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학교 교육의 팽창과 특징	679
제2절 도시중심의 근대화 정책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변화	689
제3절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의 특징	696
제4절 교육자치제 실시와 학교 교육 변화	704
제5절 목포 현대 교육의 특징과 과제	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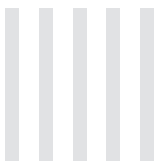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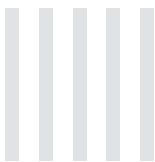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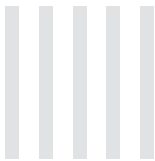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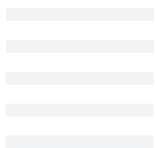




개관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관

: ‘예향(藝鄉) 목포’의 문화사

1. 이래서 ‘예향’

너도나도 자기 고장을 ‘예향’이라 부른다. 좋으니까 남발이라 해도 좋을 만큼 여기저기서 예향이라고 하고 있다. 예향의 원조는 어딜까? “예향이란 말은 일관(一觀) 조효석(趙孝錫) 선생께서 일찍이 목포를 지칭하여 쓴 것이니 목포는 이른바 예향의 원조인 셈이다.”⁰¹⁾라고 하여 단연 목포가 예향의 원조를 말한다. 대체로 1960년대 초부터 예향이란 수식어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⁰²⁾

소치(小痴) 허련(許鍊, 1808~1893), 미산(米山) 허형(許潁, 1862~1938), 남농(南農) 허견(許楫, 1908~1987)으로 이어지는 순수 예술 190여 년의 역사로 호남화단을 이끌어 온 이곳이기에 예향의 목포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⁰³⁾ 한국 근대극문학의 개척자 김우진(金祐鎭)과 「목포의 눈물」을 부른 엘레지의 여왕 이난영(李蘭影)도 있다.

향토에서 배출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도 수화 김환기(1954)부터 소영 박화성(1966), 차범석(1981), 남농 허견(1983), 최청자(2007)에 이르기까지 다섯이나 된다. 김현, 김지하도 한국문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승무와 살풀이의 인간문화재 이매방(1927~2015)의 70년 춤 인생 또한 목포 예술의 독특한 한마당을 장식하였다.

목포에는 시립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여섯 개나 있다. 국악단(1976), 무용단(1980), 교향악단(1982), 합창단(1985), 소년소녀합창단(1987), 극단(1995) 등이 그것이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

01) 주정연, 「예향 문인의 주소」, 『목포예총』8, 한국예총목포지부, 1999, 69쪽.

02) 김병고, 「목포는 예향인가」, 『목포예총』9, 한국예총목포지부, 2000, 72쪽.

03) 김암기, 「발간사 -문화협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목포예총소사』3, 한국예총목포지부, 1988.

면 부담스럽지만, 예향 목포답게 이를 감당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도 인구 비중에 비해 많기로는 전국 최고일 것이다. 그만큼 행동하는 예술의 현장이다. 그래서 예향 목포라는 이름에 당당하다. 이는 거꾸로 “좁은 도시에 예술가가 너무 많다.”⁰⁴⁾라는 우려를 낳을 정도이다.

목포를 예향이라 부르는 이유들은 그밖에도 많다.

목포시에는 어디를 가서 보아도 생활 속에 예술의 정취가 스며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집안이라도 들어가 보면 글씨나 그림 한 폭이 걸려있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구성된 남도가락 한 곡조쯤은 쉽게 부릅니다.⁰⁵⁾

우리 고장을 가리켜 오래 전부터 예향이라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풍족하지 못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인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예술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예술인들이 고향 땅에 뿌리 내리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목포 예술을 지켜 간직하고 있는 점도 목포를 예향이라 일컫는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⁰⁶⁾

목포는 한국 굴지의 예술인들을 술하게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시민들의 남다른 예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향토출신 예술가들의 뜨거운 애향심이 한데 어우러져 예향을 이루어냈다.⁰⁷⁾

생활 속의 예향!, ‘이래서 예향’이라고 한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예술에 대한 관심은 바닥이라고 한다. “예향이나 예향이 아니다.”라고 한탄한다. 예술 주체인 당사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입에서조차 여과 없이 “목포 예술 걱정된다!”라는 얘기가 신음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⁰⁸⁾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목포문화협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1897년 개항으로 일찍부터 ‘개인 곳’이었던 목포!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포 문화예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예향 목포의 이력을 살펴보고 “더 이상 예향이 아니다.”라는 한탄을 벗어나 ‘예향을 예향답게’ 만들어갈 미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04) 최재환, 「예향의 현주소」, 『목포신안예술』21, 한국예총목포신안지회, 2013, 33쪽.

05) 구용상(전 목포시장), 「새로운 전통 계승의 산실」, 『목포예총』창간호, 한국예총목포지부, 1979.

06) 홍순기, 「예총목포지부에 바란다」, 『목포예총』2, 한국예총목포지부, 1986, 39-40쪽.

07) 김병고, 「왜 목포가 예향이냐고 유달산에게 묻고 싶다」, 『목포예총』7, 한국예총목포지부, 1995, 10쪽.

08) 최재환, 앞의 글, 31쪽.

2.예향 목포의 뿌리

1) 김우진과 이난영

개항으로 시작한 근대도시 목포에서 예향의 뿌리는 근대극의 선구 김우진(1897~1926)과 엘레지의 여왕 이난영(1916~1965)에서 찾는다.

김우진은 1897년 목포가 개항되던 해에 태어나 그야말로 목포 도시 1세대가 되었다. 근대 이행기의 통상적인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억압 아래 시대적 아픔을 한 몸에 겪었던 그였지만 빼어난 천재성으로 근대극의 선구가 되었다. 일찍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목포로 귀향하여 1925년 6월 문예 동호인들을 규합, '오월회'를 결성, 동인지 『Société Mai(오월회)』을 발간하였다. 이런 토양 위에서 목포의 문학이 발전했고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는 192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50편), 희곡(5편), 소설(3편), 평론(20편) 등 총 78편의 작품을 남겼다. 근대극을 연구하고 실현한 선각자로, 목포가 낳은 최초의 근대 예술인이었다. 김우진 이후에야 비로소 신파극에서 벗어나 신극의 면모를 갖추 수 있었다. 사실주의 기법으로 목포의 현실을 직접 다룬 「이영녀」(1925)는 일제강점기 목포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뒤늦게 2015년 5월 국립 극단에서 무대에 올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였다.

동반자작가로서 식민지시대 억눌린 조선인의 삶을 조명하며 계급 의식을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던 여류소설가 박화성의 등단과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순응과 저항의 이율배반성을 담아낸 김진섭의 수필문학이 그 뒤를 이었다.

1930년대 목포는 3대항 6대도시의 전성기를 맞는데 이때에 맞춰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탄생하였다. 「목포의 애국가」라고까지 불리는 「목포의 눈물」은 “일제하 우리 민족 모두의 ‘망향가’였고 해방 후에는 설움 받는 전라도 사람들의 ‘시름가’였다. 그리고 민주 투쟁의 연대에는 장렬히 산화한 열사들에 대한 남도인의 진혼가이기도 했다.”⁹⁾는 말처럼 목포시민들의 삶과 함께 하였다. 힘들고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목포의 눈물」은 어김없이 함께 하였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목포는 항구다」¹⁰⁾라는 이미지 역시 이난영의 노래로부터였으니 목포의 대중문화는 이난영으로부터 시작하여 난영가요제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겨레의 노래」, 불멸의 국민가요로¹¹⁾ 승

09) 한송주, 「60년간 민족의 심금 울린 영원한 '망향가' '목포의 눈물」, 『예향』(1995. 01.), 광주일보, 1995.

10) 「목포의 눈물」 작사자인 문일석이 가사를 짓고 이난영의 오빠인 이봉룡이 작곡한 노래로 이난영이 불러 역시 히트했다. 이 노래로 목포는 그렇지 않아도 항구이지만 항구라는 이미지로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11) 『조선일보』 1998. 03. 09. 「김병종의 화첩기행<3> -이난영과 목포-」.

화된 「목포의 눈물」을 빼놓고는 예향 목포를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2) 김환기와 허건

외래 문물의 수용이 용이했던 목포였기에 미술의 경우에도 일본 유학파들이 광주보다 앞서 목포에서 화단을 개척하였다. 다만 1930~1940년대 일본 유학의 경험은 해방을 맞을 때까지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만한 환경을 만나지 못하였다. 일부는 1922년부터 시작한 조선총독부 주관의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전)’에 출품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선전’은 일본 화풍이 우리 미술을 잠식해 나가는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김환기는 유학 시절부터 모더니즘에 심취, 독자적으로 활동하였고, ‘선전’이나 일본 문부성 주최의 제국미술원전(帝國美術院展, 약칭 문전) 등 관전풍에 도전하였다. 해방 후에도 신사실판, 추상 운동의 전위에 서서 남도적 감성의 추상화를 정착시켜 한국 예술사에 기념비를 세웠다.¹²⁾

운림산방으로부터 허건으로 이어지는 전통 한국화가 목포 문예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은 자명하다. 허건을 통해 목포의 한국화는 일본 유학을 거친 서양화가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 목포 화단의 뿌리를 내렸다. 허건은 ‘선전’을 통해 등단했고, ‘문전’에도 입상하면서 일본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를 극복, 특유의 독필(秃筆)과 빠른 붓질로 운림산방의 가풍(家風)을 회복하고, 개성을 갖춘 남농화풍을 세웠다고 평가 받는다.¹³⁾

3) 『호남평론(湖南評論)』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목포가 월간지 『호남평론』을 낼 수 있을만한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1935년 4월부터 발간된 『호남평론』은 전남을 주 대상으로 한 종합 시사 평론지였다.¹⁴⁾

서울에 『호남평론』 총지사를 두었고, 지역 소식 뿐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도 다루고 있어 당시 목포의 문화적 소통의 범위를 보여준다. 창작시와 소설 등 문학 작품도 풍부히 게재하였고 심도 있는 시사 평론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어 당시 목포는 물론 전국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김우진의 동생 김철진을 중심으로 나만성, 김상수, 조극환, 박찬일, 박화성, 천독근 등이 주요 필진으로

12) 원동석, 「목포권 예술의 역사와 지역의 과제 - 비평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목포권 문화예술의 회복과 재창조』 (목포대 도시문화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11쪽.

13) 배종민, 「문화예술운동 미술」,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문화예술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264~264쪽.

14)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1937년(소화 12) 11월호가 마지막이다.

참여하고 있는데 당시 목포 여론 주도층의 수준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높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호남평론』을 발간할 수 있었던 문화적 역량이야말로 예향 목포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 해방 이후 목포가 예술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저력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4) 오거리

목포를 상징하는 오거리문화의 뿌리도 이때 내렸다.¹⁶⁾ 목포에서는 차 없는 거리부터 오거리를 거쳐 구 초원호텔에 이르는 무안통까지가 이른바 ‘신파의 거리’로 신파적 대중문화가 행해지던 공간이었다. 이 거리는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을 이어주는 거리로 두 마을의 문화적 차이를 극명하게 담고 있는 이중성의 거리였다.

오거리는 일터인 선창과 일꾼들의 거주지인 조선인 마을을 이어주는 점점 도로였다. 조선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처음에는 무안통을 거쳐서, 이후 국도 1호선이 개통되면서는 오거리를 통해서 그들의 일터인 선창으로 왕래했다. 사람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면서 동시에 대립적인 두 마을을 이어주는 거리, 바로 그 중간 지대에 대중문화 공간이 자리 잡았다.

목포의 관극장·대중 연예장 등 대중문화 시설들은 대부분 이 거리에 있었다. 최초로 1904년에 ‘목포좌(木浦座)’가 지금의 복만동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4년만인 1908년에 폐장되었고, 대신 그 해에 ‘상반좌(常盤座)’가 상락동에서 뒤를 이었다. ‘상반좌’는 1914년에 3층으로 증축하여 138평에 이르렀으나 허가 기간 만료로 1929년 9월 30일에 폐쇄되었다. ‘상반좌’가 폐쇄되기 전에 무안동에 활동극영화 상설 극장인 ‘희락관(喜樂館)’이 설립되었으나 1926년에 화재로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까지도 맥을 잇고 있는 목포극장(현 메가박스 목포점)도 여기에 있다. 1926년 11월에는 전라남도 물산공진회와 조선 면업(綿業)공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에 맞추어 죽동에 목포극장이 조선인에 의해서 세워졌다. 1927년에는 불타버린 희락관 자리에 ‘평화관(平和館)’이라는 상설 활동 사진관이 섰다. 평화관은 목포극장과 양 날개가 되어 목포의 대중문화를 주도하였다.

15) 그 밖에 조선(朝鮮)푸로레타리아예술동맹(同盟) 목포지부(木浦支部) 활동이 있었다. 목포에서는 1928년 4월 1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 설립대회를 개최하려 하다가 소위 목포운동분규사건(木浦運動紛糾事件)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는데, 관련자들이 만기 출옥함에 따라 그해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목포청년동맹 회관 내에서 지부 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중외일보』 1928. 12. 04. 「푸로연맹 목포지부 설립 준비위원회」). 비슷한 시기에 목포예술연구회도 창립되어 여러 지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최성환, 「해항도시 목포의 예술성과 가요 <목포의 눈물> 활용사례」, 『한국민족문화』 4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참조.

16)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역사문화학회, 2006, 91~127쪽 참조.

5) 그 밖의 예술 활동

목포에서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예술 활동 중 대부분은 자선기금이나 구제금을 모으기 위한 것들이었고, 위안을 목적으로 한 공연들도 있었다. 그 몇몇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목포여자수양회(木浦女子修養會)에서 야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¹⁷⁾ 목포 기독교회에서 세운 사립 희성유치원에서 경비에 보태기 위하여 교회의 부속 기관인 찬양대를 이용하여 상반좌에서 가극회(歌劇會)를 개최한다든가¹⁸⁾ 하는 등의 교육 기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들이 있었다. 또 목포정명여학교 주최로 기금 구제를 위한 음악회를 연다든가¹⁹⁾ 또 목포청년동맹에서는 회관 수축(修築) 기금을 얻기 위하여 목포극장에서 소인(素人) 연극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²⁰⁾

그 밖에도 노동야학이나 수해 구제를 위한 음악 대회들은 끊임없이 열렸다. 수해구제를 위해서는 목포 예기(藝妓)들의 연극회도 빠지지 않았다.²¹⁾

그 밖에 위안을 위한 것으로는 『매일신보』 목포분국 주최로 예기들을 동원하여 5주년 기념 독자 위안회를 개최한다든가²²⁾ 목포 소년으로 조직된 십승단(十勝團) 주최로 희성유치원에서 연 ‘서중(暑中) 위안소년극(慰安少年劇)’이 있었고,²³⁾ 목포공립보통학교에서 목포현악회 일류 악사들을 총동원하여 개최한 시민납량음악대회도 있었다.²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예술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쩌면 예향의 원래 의미는 예술이 자선이나 위안을 위해 활용하는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행사들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들에 ‘입장자가 천수백명(千數百名)’, ‘관중은 무려 천 명에 달한 대성황’, ‘칠팔백 명을 수용하는 장소가 만원’²⁵⁾이라 하여 왕왕 성황리에 끝났음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그런 활동들이 그나마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유지 내지 대중들의 예술적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바탕에 힘입어 예향을 예향답게 만드는 ‘생활 속의 예향’ 목포의 싹이 트고 있었다.

17) 『매일신보』1921. 03. 11.

18) 『동아일보』1923. 06. 12.

19) 『시대일보』1924. 12. 09.

20) 『동아일보』1929. 10. 23.

21) 『중앙일보』1934. 09. 01.

22) 『매일신보』1920. 03. 14.

23) 『시대일보』1925. 07. 26.

24) 『동아일보』1931. 08. 25.

25)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9-1, 역사문화학회, 2006 참조.

3. 예향 본색 - 목포문화협회 시대

식민 도시로 각인되었던 목포였기에 해방의 기쁨은 남달랐다. 하지만 ‘해방’에서 ‘분단’으로 귀결되는 해방 공간에서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기를 맞았다.

『호남평론』을 발간한 저력의 목포는 해방 직전의 암흑기에도 동인지 발간을 위한 열정들을 보였다. 그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목포문화예술동맹을 발족하면서 예향 목포를 제창하였다. 행정가나 시민이나 지식인들도 그것을 뒷받침하였다.²⁶⁾ 그 열정이 해방 직후 『예술문화』를 탄생시켰고, 1946년 조희관의 발의로 『보국문학』을 발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47년 목포 최초의 출판 기념회가 국취관 무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박화성의 첫 번째 단편집 『고향 없는 사람들』 출판 기념이었다. 파란만장했던 해방 공간의 격랑도 목포 예술의 열정만은 막을 수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 지역 출신 화가들도 귀향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1946년 목포에서는 남농 허건의 지원을 받아 동인 단체로 문원(文園)을 대표로 하고 김동수(金洞守), 백흥기(白洪基) 등이 참여한 목포미술원이 전남 최초로 탄생하는가 하면, 백영수 등이 이끄는 녹영회도 결성되었다. 전자는 좌익 단체인 조선예술가동맹의 지역 분회격이었고, 후자는 우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해방 공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6·25전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는 1951년 1월 27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를 결성하였고,²⁷⁾ 그해 3월 1일에는 3·1절 기념 종합 예술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서울 수복 이후 해군 목포경비부가 돌아왔고, 그에 따라 정훈 사업의 일환으로 월간지 『갈매기』와 주간지 『전우』를 발간했다. 이때 해군 정훈실의 위촉을 받아 조희관, 이가형, 장병준, 백상진, 이진모, 장덕, 차재석 등이 편집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갈매기』는 김평옥이, 『전우』는 조희관과 차재석이 각각 편집 주간을 맡았다. 1951년 2월 1일 창간호를 낸 『갈매기』는 4호에서 멈추고 말았지만, 6·25전쟁 이후 모든 출판계를 통틀어 최초의 월간지란 기록을 세웠고 목포 문단을 세우는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제일인쇄소에서 인쇄하였다. 『갈매기』는 향도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우』와 함께 당시 광주·전남 일대에 피난 와 있던 문인들의 작품 발표 무대가 되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명망을 얻었다.

이 시절 한글 학자이자 수필가였던 조희관은 향도여중(현 목포여고) 교장으로 재임 시 학생문예운동을 주창하여 동인시대의 문을 여는 등 전후(戰後) 움츠렸던 목포예술문화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그가 주도한 『시정신』은 당대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들을 망라한 탁월한 기획으로 목포문학사의

26) 차범석, 「목포는 예향인가」, 『목포예총』7, 한국예총목포지부, 1995, 29쪽.

27)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1947년 2월 12일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경이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를 주관했던 다목동 차재석은 이후로도 지방 문화의 지킴이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1952년 9월 5일자로 창간된 『시정신』은 당대 한국 대표 시인들의 집결지가 되었다. 전쟁조차도 목포 문화의 열기를 억누르지는 못했다. 『시정신』은 1966년 2월 10일, 5집까지 간헐적으로 발간하다 끝났지만, 『시정신』이 문단에 미친 영향은 독보적이었다. 조희관, 차재석 등의 후원 아래 1955년에는 『각서』 동인 활동이, 1959년에는 『낙서』 동인 활동이 두드러졌다.

1954년 차범석은 『근대 1막극선』이라는 희곡 번역집을 발간했는데 이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출간된 희곡집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목포의 연극은 차범석과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그의 그늘은 컸다. 그는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로 꼽힌다.

전국 문화 단체 총연합회 목포지부 결성에 이어 목포사진예술연구회(1953), 목포국악원(1954), 목포음악가협회(1955), 목포연극동호회(1956), 목포무용가협회(1957) 등이 발족하였고, 그런 흐름 위에 마침내 1958년 9월 15일 목포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소청 조희관의 타계를 계기로 상가에 모였던 예술동인 50여 명이 뜻을 모아 이날 오후 4시 목포시 호남동 1번지 구 목포방송국 공보관에서 목포문화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회장에 허건을 추대하였고, 부회장은 최경산, 김일로, 간사장은 차재석이 맡았다.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등의 6개 분과로 조직하였다. 1958년 9월 20일 목포문화회가 조직되고 『목포문학』이 창간되었다.

목포를 떠난 적이 없는 허건이 중심이 되어 수묵화의 전통을 이었다. 스승과 닮은 양식의 보수성을 유지한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의 문하생들과는 달리, 허건은 화풍의 개성, 다양성을 자신의 문하생들에게 지도하고 장려하였다. 그 스스로가 근대화를 이해, 수용하였고 자신의 개성적 화법으로 남도적 감성을 표현하는데 성공한 대가였다. 그를 뛰어넘는 후대 수묵작가는 아직 없다고 할 정도이다.²⁸⁾

우리나라 서예의 큰 별이었던 소전 손재형 또한 목포 서예계에 진한 족적을 남겼다. 일본식 서도(書道)란 말을 서예로 바로잡았고, 서희환(徐喜煥) 등 후예를 배출시켰다.²⁹⁾

1950년대 미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김환기의 역할이 컸다. 그는 양수아와 함께 한국 추상미술운동을 활성화시켰다. 1958년에는 8·15 광복을 기념하여 젊은 작가들이 ‘십대전(十代展)’ 창립전을 열어 도전과 실험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목포 화단에 자극을 주었다. 또 김수호, 강동문, 양인옥 등 기성세대 작가들의 ‘삼인전(三人展)’ 창립전을 비롯한 각종 그룹전이 줄을 이어 열리면서, 목포화단, 나아

28) 원동석, 「목포권 예술의 역사와 지역의 과제-비평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목포권 문화예술의 회복과 재창조』(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29) 차재석의 「목포미술의 발자취」에 언급된 내용으로 정다운, 「30년째 목포예술을 지켜보며 생각나는 사람들!」, 『목포예총』9, 한국예총목포지부, 2000, 90쪽에 인용되어 있다.

가 호남화단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구심점이 되었다.

이렇듯 목포문화협회 시대에는 각종 그룹의 결성, ‘십대전’의 도전과 실험 정신, 활발한 다방전시, 『목포문학』과 『산문시대』 창간과 활동, 연극판에서의 기획공연 등이 봇물을 이루어 그야말로 예술의 도시라 불릴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목포문화협회가 예향 목포에서 갖는 위치는 각별하다. 그 당시에는 가난했어도 순수했고, “가히 목포예술의 백화제방 시대였다.”고 원로 예술인들은 회고한다. “오거리 어느 일본식 건물에 세 들었던 협회 사무실엔 언제나 그리운 얼굴들이 모여들었고, 저녁이면 화기에애한 술자리로 이어져 예술인들 에겐 더없는 휴식과 격려와 친목의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³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땀땀 하고 오붓하게, 혼자보다는 함께 서로 돕는, 물욕보다는 예술에 대한 자발적 열정이 보여준 목포 예술의 황금기였다.³¹⁾

당시에 목포는 예술 활동에서 어느 지방 어느 대도시보다 앞섰었다. 특히 서울의 예술인들이 대거 목포를 드나들면서 경향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을 거치면서 목포가 선진 문물의 통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목포 예술인들이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었고, 6·25 피난 시절에 서울의 예술인들과 맺은 인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 덕분에 물이 고일 틈이 없었고, 예향을 가꾸는 옷거름이 되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³²⁾

목포문화협회는 1959년 6월 22일 무안동 오두막집 2층 건물(후에 해태다방)에 예술회관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이듬해 8월 15일 무안동 1번지 모던사진관 3층으로 옮겨 목포문화협회 회관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예총’시기를 맞는다.

4. 예총과 목포의 예술

1960년 5·16 군사정변에 이어 수립된 군사정권은 문화예술계에도 통제와 압박을 가해왔다. 그리하여 1962년 3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목포문화협회는 해산되었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목포지부(이하 목포예총)가 출범하였다. 미술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등 7개 분과의 지부로 개편되었다.

30) 주정연, 『뜻으로 본 예향 100년』, 『목포예총소사』5, 한국예총목포지부, 1997.

31) 차범석이 「목포문화협회 시대로 돌아가자」(『목포예총』6, 한국예총목포지부, 1993, 24~27쪽)는 글에서 꼽은 문협시대의 예술인들로는 문학에 오덕, 나천수, 이문석, 백두성, 목일신, 차재석, 박순범, 미술에 김동수, 문재근, 백홍기, 정철산, 허림, 김수호, 장덕, 음악에 이천백, 박항심, 조주환, 연극에 장병준, 박경찬, 홍순태, 이화산 등이었다.

32) 차원재, 「예향 가꾸던 옷거름이라고 할까」, 『목포예총』9, 한국예총목포지부, 2000, 69쪽.

위로부터 강제된 예충은 자유롭던 목포의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관제의 예술제 행사가 빠짐없이 진행되는 반면에, 하나 둘 목포를 떠나는 예술인들이 나타나 목포는 서울 예술의 충원지가 돼버렸다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³³⁾

이처럼 목포 예충의 출범은 순탄치 못하였다. 우선 회관부터 이전에 이전을 거듭하면서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³⁴⁾

동지를 틀지 못해 전전하던 예충은 1989년 3월 20일 송재구 시장이 90평 규모의 전시장 예충화랑을 마련해 줌으로써 남교동 11의 19 중앙공설시장 2층(구 공무원연금매점 자리)으로 이전하였다. 이때부터 예충화랑이 주요 행사장소로 활용되었다. 그 후 1997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고, 여기에 겨우 입주하여 비로소 안정적인 터를 잡았다.

예충회관에서 있었던 기억할 만한 일로는 1966년 10월 31일 ‘영광의 밤’ 행사를 꼽는다. 이날 목포의 예술인들은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양인옥과 또 국전에서 연 2회 특선을 한 서희환 등이 우리 고장의 명예를 크게 빛내준데 대한 축하의 밤을 가졌다. 그리고 권일송의 처녀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의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자축연도 가졌다. ‘우리 고장이 예술의 고장임을 실감하게’ 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이때가 1960년대 문화협회·예충 시절의 전성기였을 것이다.

1966년 흑조시인회를 싹 틔웠으며, ‘보림문학’, ‘해안선’을 거쳐 ‘청호’, ‘시율’, ‘풀잎’으로 이어지는 동인시대를 부단히 열어왔다. 1979년 3월 3일에는 성옥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목포예충 기관지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982년에는 한국연예협회 목포지부를 창립하였다. 그때까지 많은 가요인과 연예인을 배출하였으면서도 연예협회가 없었으나 이때 비로소 구성하였다. 늦었지만 현대 목포대중문화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 이로써 8개 협회가 되었다. 이후 2011년 신안군이 목포예충에 통합되어 목포·신안 예충이 되었다. 수석협회가 이때 태동하였다.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1959년 제1회 목포예술제를 시작으로 2016년 제56회까지 이어지는 목포 예술제를 통해 예충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1960년대 초 예술제가 열리는 기간의 오거리와 목포역, 평화극장 일대는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흥분과 환호가 넘실거렸다.³⁵⁾

예충 목포 지부는 남농예술상, 남교문화상, 송암창작상, 행남문화상, 유달예술상 등을 제정하여 지

33) 주정연, 「뜻으로 본 예충 100년」, 『목포예충소사』5, 한국예충지부, 1997, 104쪽.

34) 예충회관은 1964년 9월 5일 남교동 공설시장 2층으로 이전하였고, 1970년 8월에는 무안동 5번지 쌍미사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1971년 10월 1일 무안동 5번지 건물을 매각하고 남교동 53번지 전 목포교육청 청사 건물을 사서 이전하였고, 그 해 11월 5일 예충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다시 1977년 10월 17일 남교동의 예충회관을 매각하고 무안동 10의 15번지 건물을 매입, 신회관으로 이전하였다. 매각에 다른 파문도 있었다. 오거리에 조금 더 가깝게 가고 싶은 욕구가 이전을 서두르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35) 최하림, 「목포예충의 발전과 동인활동 -프로메테우스 같은 새 예술동인을 기다린다-」, 『목포예충』7, 한국예충목포지부, 1995, 31쪽.

매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술원 회원 초청 심포지움, 실버를 위한 공연, 동서예술교류전, 청주에
충교류전, 예향목포작가전, 원로중진작가전, 출향예술인 열린음악회, 젊은 문화콘서트 등 예총의 사
업과 각 협회 단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³⁶⁾

목포 오거리는 근대도시의 경험의 집약된 곳으로 목포의 상징 공간이다. 아무래도 목포 예술의 뿌리는 오거리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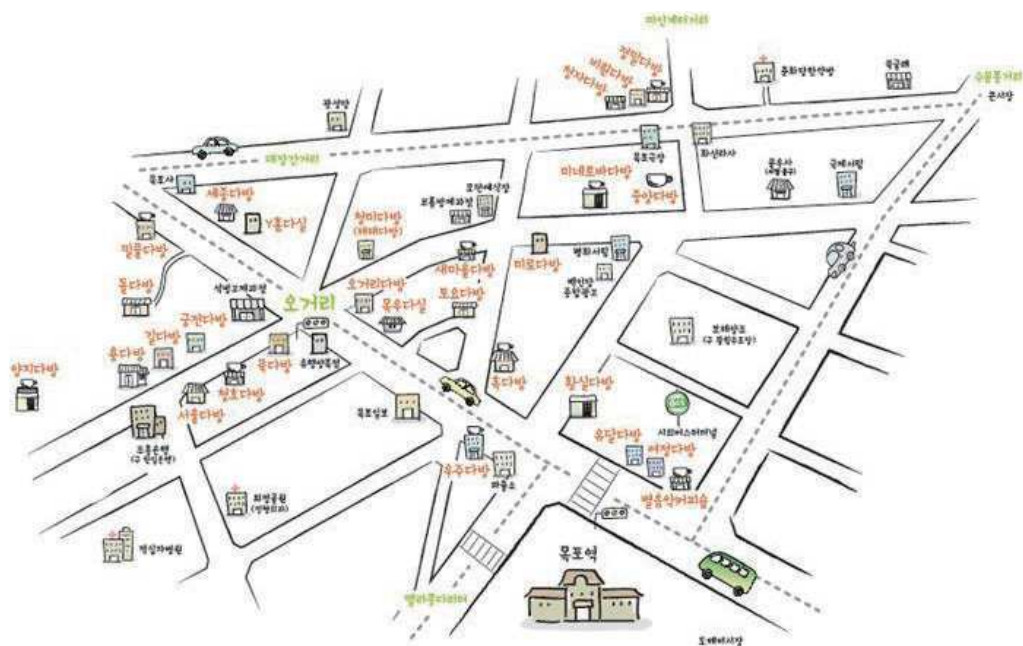


그림 1 오거리 주변의 다방(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2013, 168쪽에서 인용)

개관 33

20세기 중반기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옛날 다방들도 이 거리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다방은 단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보고 나누는 장소였다. 문인, 화가, 예술가들의 아지트였고 토론장이자 전시 공간이었다.³⁷⁾ 똑똑한 다방 마담은 미술 큐레이터를 겸하기도 했다.³⁸⁾ 예향 목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남가다방(1954)을 필두로 가고파다방, 여정다방, 오거리다방, 청호다방, 길다방, 용다방 등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이른바 다방전시회시대를 맞는다. 그 중에서도 1960년대 다방전시회는 새마을 다방과 밀물다방이 쌍벽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주요 예술 활동이 이 두 다방에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밀물다방이 단연 돋보였다. 1959년 11월 1일 제1회 목포예술제가 열렸을 때, 다방가에는 각종 회원 전시가 개최되었고, 소공간에서는 연극, 무용, 음악 공연과 문학발표회 등이 열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79년 황실다방, 이어서 1982년 세종다방이 나타나 주요무대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를 이끌던 새마을, 밀물은 1984년을 경계로 사라졌다. 1991년 10월 문협회원시화전을 마지막으로 황실다방도 무대에서 사라진다. 1992년 태극다실과 목다실을 끝으로 다방은 이제 더 이상 문화공간이 아니었다.

한편 다방 이외에도 제대로 된 문화 공간이 없다보니 아쉬운 대로 이곳저곳을 활용하였다. 연극 무대로 자주 활용되던 유원회관이 있고, 목포극장을 비롯하여 평화, 중앙, 남일, 호남 등의 극장, 목포예식장을 포함하여 모던, 문화, 봉황 등의 예식장, 학교시설로 북교초등학교, 정명여학교, 목포여고, 목포사범학교 등 지역 학교들의 시설이 그때그때 무대로 활용되었다. 특히 목포예술제 기간에는 이런 시설들이 총동원되었다. 그만큼 활기차기도 했지만 웅색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 다방을 대체할 전시공간들이 차츰 여럿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4년 9월 22일 연극협회 목포지부가 남교동 소재 공설시장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을 대여 받아 ‘예술인 사랑방’으로 개관식을 가졌다. 이후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되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전시실, 목포시민회관 등을 시작으로 예총화랑(1989년 3월), 목포MBC 전시실(1990년 3월 3일), 목포KBS 공개홀·전시실·스포츠홀, 남농기념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남경문화회관, 목포가톨릭회관, 향토문화관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37) 일제강점기 서울 다방들의 역할을 보는 듯하다. 당시의 다방은 “영리가 아니요 멋이요, 그 멋을 알아주는 손님은 고객이 아니라 동지”라 하거나 “당시는 다방 출입이 문화인의 필수 조건이었고 다방은 문화의 산실이였다.”(이서구, 『세시기』, 배영사, 1969)라고 하였다. 당시 서울의 대표적 다방으로는 “낙랑(樂浪) 파라”를 꼽는다.

38) 『전남신문』 2008. 06. 02. 고정연, 「오거리 다방, 예술인 사랑방으로 부활」.

비록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공간 범위가 오거리를 벗어났고, 좀 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활기를 더했다. 이에 따라 다방전시회시대를 마감하고 외연이 확대된 예술의 고장이 되었다. 그러나 확대되는 외연만큼 구심력은 약해져갔다. 다양성을 확보하였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는 오히려 실패한 느낌이다. 목포의 문화 기상도도 조금씩 변해갔다.

당시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학교에서의 예술 활동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다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워 예술품 감상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언제까지나 옛날 다방이나 예식장을 빌려 행사를 치를 수는 없었다.³⁹⁾

오거리와 목포문화협회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여전하다. 당시에 정감을 누렸던 오거리 문화를 부활하고자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5월 목포오거리 문화예술단이 다방과 식당을 활용하여 ‘신개념현장미술 -오거리 다방전’을⁴⁰⁾ 개최한 것도 그 중 하나이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기획 특별전 『항구 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2013)도 그런 기억 불러내기의 하나였다.

2009년 12월에는 한국화·서양화·서예·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업하는 예술인 28명이 ‘오거리 문화예술협회’를 창립하였다. 창립 취지문에서 “오거리는 목포의 심장이다. 오거리가 살아 숨 쉬지 않으면 목포의 미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⁴¹⁾ 아슬아슬하게 철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오거리문화센터(구 동본원사 별원)의 활동이나 지금 목원동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생 사업의 지향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

6. 위기의 예향 - ‘말로만’ 예향

1979년 『목포예총』⁴²⁾ 창간호에는 「목포예총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란수, 김수호, 김일로, 박순범, 조효석 등이 참석한 좌담회가 실렸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초창기의 예총에 대하여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단합심을 지목하여 강조하였다.

39) 문영식, 「목포 예술문화 발전과 전망」, 『목포예총』2, 한국예총목포지부, 1986, 62쪽.

40) 『전남신문』 2008. 06. 02. 고정연, 「오거리다방, 예술인 사랑방으로 부활」.

41) 『조선일보』 2010. 01. 15. 「목포 ‘오거리’ 문예전통 살린다」.

42) 목포예총의 기관지 『목포예총』은 1979년 3월 창간호, 그 후 7년만인 1986년에 제2집이 발간되었다. 한두 해씩 건너뛰기는 하였지만 2006년 제14집까지 나왔고, 그 후, 제호를 『목포예술』로 바꿔 2011년 19집까지 냈다. 이후 2012년에 20집은 『목포신안예술』로 바꿨다가 2014년 22집에는 다시 『목포예술』로 바꿔 지금에 이른다.

1988년 12월 『목포예총소사』제3집에 지부장 김암기는 「문화협회(文化協會) 정신(精神)으로 돌아가자」는 발간사를 썼다. 거기서 의미심장한 지적을 하고 있다.

1962년 목포의 자생적 문화단체(즉 목포문화협회)가 정부 방침에 따라 해산되고 오늘의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로 본부에 예속된 문화단체가 된 셈이다. 그로 인해 더욱 활발하게 발전해야 할 목포지역 예술은 오히려 생산적이고 독자적인 예술활동도 여의치 않았고 행사 위주의 소극적인 지원과 예술회관 하나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 1958년 자생적으로 되돌아가 25만 시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예혼을 가꾸고 닦아 우리의 새 방향을 설정할 때가 온 것이다.

이어서 1993년 『목포예총』제6집에는 차범석의 「목포문화협회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글이 실렸다. 1999년 『목포예총』제8집 「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권두언에서 차범석은

나는 언젠가 목포문화협회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문화협회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 목포예총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부터 살리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 하였다. 그 책의 편집 후기에는 “1957년부터 1960년 초반까지 목포예총은 작가정신이 투철한 그 어느 지방에도 뒤지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고하면서 “다른 지방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보면 부러워진다. 우리도 한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였는데 요즈음은 회원 모두가 예총의 활동을 남의 일 보듯하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자조의 한탄이 여과 없이 표현되었다.

초창기 예총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회원들 간의 친목이 잘 되었고 예술인의 긍지가 있었고 예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일했고 예술인들이 한결같은 단합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회원 수가 적어 단합하기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식민지, 분단과 6·25로 이어지는 격동기의 가난을 함께 겪었던 공통의 경험들이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엮어 주었던 점도 있었고, 중심점 역할을 했던 예술인들의 리더십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10여 년만에 “문화협회시대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크게 달라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목포 토박이와 외래 회원들 간의 갈등을 첫 번째로 꼽는다. 문화협회 시대와 1960년대 목포예총 초창기에는 회원들 간 화기애애한 가족적 분위기로 전국적인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회원들 대부분이 목포 토박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총으로 바뀌면서 회원들의 자격이 제한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외래 회원들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공립학교 교원들은 거의가 객지 사람들이라 목포에 잠시 머무는 정도여서 토박이 회원들과 융합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토박이 회원들의 배타성이 비목포 회원들과의 갈등을 낳았고 그것이 예총의 단합을 해친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⁴³⁾

또 목포출신 예술인이 목포를 지키면서 예술 활동을 하기 보다는 조금만 이름이 나면 중앙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이촌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목포의 정치는 소외되었고, 경제는 멈췄고, 사회는 낙후되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목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이런 분위기는 다시 지역 사회의 침체로 이어져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예술가들이 목포를 떠나는 탈목포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오히려 서울을 무대로 한 타지역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떠나 비어버린 목포의 예술은 황폐화하였다.

타지방과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아 변화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구태에 머물게 되었다는 점도 들었다. 이 때문에 예술 창작에 필수적인 예술인 상호간의 자극과 경쟁 심리를 잃어갔다.⁴⁴⁾ 예술인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행정 당국의 뒷받침이 미온적이었고, 예술 정책도 빈곤하였다.

목포는 소외되었었고 그래서 가난했고, 예술인들의 자생력이 부족했고, 시 행정당국의 정책이 빈곤했고, 시민들이 예향임을 자랑만 했을 뿐이지 부끄러워할 줄 몰랐고, 교육자들이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아다니는 감상교육을 외면하였고 …….⁴⁵⁾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향토주의의 한계가 왔다고도 진단한다. 향토주의란 “시대적 조류의 동향이나 민족적 삶의 현실 직시, 혹은 1980년대 미술운동 등과 단절, 소통되지 못한 채 지방적인 자연 풍물에 자족적으로 매몰되어 자기 삶의 현실 반영마저 통찰하지 못한 유희주의적 예술관에 간혀 있음을 말한다.”⁴⁶⁾고 한다. 다른 말로는 폐쇄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빈곤은 미술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지역 미술인들이 미술대전이나 공모전에 매달리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작품들이 개성을 잃고 심사위원을 의식한 구태의연한 작품이 늘게 되었다.⁴⁷⁾ 예술의 생명인 창작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43) 조효석, 「목포예총에 바란다」, 『목포예총』2, 한국예총목포지부, 1986.

44) 최하림, 「목포예총의 발전과 동인활동-프로메테우스 같은 새 예술동인을 기다린다-」, 『목포예총』7, 한국예총지부, 1995, 31쪽.

45) 김병고, 「왜 목포가 예향이라고 유달산에게 묻고 싶다」, 『목포예총』7, 한국예총목포지부, 1995, 10쪽.

46) 원동석, 「'90년대 지역미술의 과제와 전망」, 『목포예총』4, 한국예총목포지부, 1989, 32쪽.

47)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술 중흥을 위한 방안 특집좌담」, 『목포예총』7, 1995, 14쪽.

이처럼 중앙 중심적 국전이라는 관전 제도 밑에서 지역적 독자성을 갖지 못한 채 중앙 지향적인 출세주의에 연연함으로써 자기 현실 문제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인재들이 조금만 이름이 나면 중앙으로 빠지고 만다. 그러다보니 예술인 사이에서 토박이와 나그네의 갈등도 심상치 않게 나타나 융화를 꾀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성이 강한 목포에서 이런 풍토로 인해 새로운 조류나 실험적인 작품들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결국 열악한 시장성이 목포미술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 셈이다. 그리하여 “목포는 예술인들만 예술한다고 하고 있지 전시장엘 가 봐도 파리를 날리는 실정입니다. 연극은 관객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예술입니다.”,⁴⁸⁾ “지방 예술인이야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यो, 구색 맞추는 데에만 쓸모 있는 액세서리 정도였다.”라는 지방 예술인으로서의 자조론까지 만난다.⁴⁹⁾ 문화 의식의 결핍, 이는 시민도 행정 당국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목포는 그저 ‘말로만 예향’이었다는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예총 내부의 알력(軋轢)은 여전하였다. 미술계에서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간의 대립으로 비롯된 갈등이었다. 그래서 ‘회원 간 화합’이 늘 예총 회장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⁵⁰⁾ 한마디로 구심점은 열어졌고, 정체성은 얕아졌다.

7. 지방에서 예술하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우울하지는 않았다. 지방에서 예술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싹들을 보이고 있다.

1) 남농 허건과 수묵화

‘목포를 떠난 적이 없는’이란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허건이야말로 지역에서 예술하기의 산증인이다. 남농 허건 일가는 외형만이 아닌 정신과 뜻을 그리는 사의(寫意)를 중시하는 ‘남종화’를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남농은 관념적인 것에서 그칠 수 있는 남종화풍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계승했기에 의미가 크다.”는 평을 받는다. 또 자신의 고향인 남도 지역의 풍광과 정취를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 허

48)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술 중흥을 위한 방안 특집좌담」, 『목포예총』7, 1995, 14쪽.

49)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총소식」13·14, 11쪽.

50) 한국예총목포지부, 「임점호 회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목포예총』13, 2005.

진은 특히 1945년 이후부터 일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색화 기법을 버리고 수묵이 강조된 산수를 집중해 그렸다. 전국을 여행하며 점묘법, 갈필법 등으로 실경을 담아내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런 화풍에 ‘신남화’라는 이름도 붙었다.⁵¹⁾ 남도의 정취가 살아 있기에 목포는 물론 한국 수묵화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 맥은 이어져 2018년 국제 행사로 진행될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까지 이르렀다.

2) 생태 예술

갯벌 작가로 널리 알려진 박석규는 ‘십대전’ 조직 결성과 목포문화협회 창립(1958), 목포예총 설립(1962), 갯돌의 문화운동과 민중미술운동(1985),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결성(1988),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 설립(1990), 목포민예총 설립(1994) 등의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면서 근현대 목포 예술의 산증인이자 삶과 예술을 동일시한 실천적 활동가였다. 특히 1990년대 진보운동 진영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자연과 인간의 근원적인 민중성, 생명성을 갯벌 미학에서 찾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의 미술의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로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영산강 문화권 사람은 바다와 갯벌을 삶의 무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 환경을 문화로 엮어내는 데 지역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목포에서 예술하기의 키워드는 바다와 갯벌을 뜻하는 ‘갯벌’, 항구, 다도해 등에 있다고 보아, 갯벌 작가 박석규를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꼽는다.⁵²⁾

지방에서 예술하기의 성공 여부는 생태 예술을 통해 남도예술의 주체성, 독자성을 발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남도 자연의 재발견에 성공하고 있는 작가들, 즉 박석규를 필두로 남도의 산을 독창적 수법으로 그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김천일, 그 밖에 김호원, 박성우, 정태관 등이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⁵³⁾

51) 『조선일보』 2007. 06. 05. 「점(點)··· 점(點)··· 남도가 실려왔다 / ‘허건 회고전’」.

52) 손재오, 『미적 삶의 형식으로서 로컬 미학 -목포미학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6, 80쪽. 갯벌에 대하여는 이윤선, 「영산강의 인문지리와 갯벌문화사론」, 『도서문화』38,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1 참조.

53) 원동석, 「목포권 예술의 역사와 지역의 과제-비평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목포권 문화예술의 회복과 재창조』(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2010 참조.

3) 공연 예술의 르네상스

침체된 목포예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프로메테우스와도 같은 새로운 예술동인들을 결성토록 하는 일이라는 외침이 있었다.⁵⁴⁾ 그 일은 공연 예술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기의 목포 예술은 공연 예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공연예술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 권력의 억압적 감시와 탄압 때문에 그저 새마을극이나 서양연극을 답습하는데 머물러 있었을 때, 이에 저항하는 마당극이 재야연극으로 대두되어 식상한 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기세를 올렸다. 목포 연극도 그 영향을 받아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품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소극장 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인 1984년 6월, 목포시에서 대여한 시민회관 내부에 소극장 ‘예술인 사랑방’이 연극 협회 전용 소극장으로 개관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용해동 80평 지하에 김창일이 소극장 ‘뜨락’의 문을 열었다. 목포 연극은 ‘목포극협’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 1월 ‘뜨락’이 ‘목포극협’에 합류, 1991년 ‘선창’으로 개칭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새결’, ‘그라제’ 등 민간 극단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981년 5월, 목포YMCA극회 ‘민예(민족문화예술연구회)’가 창단되었다. 회원 공동 창작과 김빌립 연출로 압태도 소작 쟁의를 소재로 한 마당극 「나락놀이」(1981년 9월), 「어부놀이」(1983년) 등을 공연하여 젊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⁵⁵⁾ 극회 ‘민예’는 1985년 3월, 목포청년Y놀이패 ‘갯돌’로 극단명을 바꿔 마당극의 격을 높이는 민중 속의 놀이패로 발전하였다. 공동 창작·연출로 마당극 「음메야」(1985년 5월), 「늑두밥」(1986년 5월), 「아 광주여, 5월이여」(1986년 5월) 등 그릇된 정치·사회를 풍자하는 작품들을 내놓아 대학가의 관객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YMCA에서 독립, ‘놀이패 갯돌’, 다시 ‘문화패 갯돌’로 개칭하였고, 대중문화 운동체로의 전환을 꾀하였다.⁵⁶⁾ 극단 ‘갯돌’은 부족한 재정에 단원 13명 뿐인 지역 연극단 체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전국 순회공연 백회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갯돌은 2001년 제1회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을 시작한 이래 이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끌어왔다. 12회째부터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로 격상시켰다. 매년 목포의 한여름 밤을 축제의 열기 속에서 지

54) 최하림, 「목포 예술의 발전과 동인활동-프로메테우스 같은 새 활동을 기다린다-」, 『목포예술』7, 한국예술총지부, 1995, 31쪽.

55) 김창일, 「특집 목포예술소사-연극」, 『목포예술』7, 한국예술총목포지부, 1995, 46쪽; 김도일, 「문화예술운동 마당극」,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문화예술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540-555쪽. 극단 갯돌 홈페이지(<http://www.getdol.com>) 참조.

56) 김도일, 앞의 글, 543쪽.

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갯돌의 상임연출 손재오는 광주 5·18을 소재로 다룬 총체극 「자스민 광주」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2010년 9월 민족극계 최고 권위인 ‘민족 광대상’을 받았다. 개인의 예술적 성과와 함께 소속 극단의 기여도, 민족극 운동의 공헌도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였다.⁵⁷⁾ 남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하여 공연 예술의 경쟁력으로 키워나가는데 그의 역할은 컸다.

4) 예총 - 민예총: 대립에서 협치로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기 동안 정권 측의 지배문화와 문화운동권의 저항문화 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조화나 균형보다는 대립만이 존재했다. 이런 이분법적 대립 국면은 예술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민예총의 창립에 따른 예총 대 민예총의 대립구도가 그것이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 민예총)’은 1988년 12월,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운동의 대종화’를 목표로 내걸고 발족하였다. 목포에서는 1990년 진보예술운동의 연합체인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약칭 목문연)’이 창립되었다. 박석규가 초대 의장에 추대되었다. 이 목문연을 토대로 1994년 6월 1일 목포가톨릭회관에서 민예총 목포지부를 창립하였다. 이는 전국 최초의 민예총 지부 결성이었다. 전통문화를 아끼고 민족문화를 세워나가는 데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미숙하지만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터였다. 민주화 운동기를 그냥 보내버린 뒤늦은 움직임이었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는 민예총이 제도권 안에 편입되면서 창립 당시의 도전적 역할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문화에서도 포스트모더니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고, 더구나 한류가 대세를 이루면서 설 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2003년 당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던 차범석 등이 ‘연극인 100인 성명’을 발표하여 민예총에 편중된 문화단체장 인사를 비판하였다. 이는 “특정 세력 편들기도 아니고 민예총 때리기도 아니에요. 문화계를 대승적(大乘的)으로 걱정하며 예술계 화합을 깨뜨리는 새 정부를 비판한 거죠.”⁵⁸⁾ 라는 그의 말처럼 ‘코드 인사’ 공방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코드 갈등에 목포 연극계의 대부가 나섰으니 목포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계 반세기란 한마디로 분열의 시기였습니다. 난 이 분열이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뿌리도 없이 덩굴들끼리 얽히고 설키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분열이 문화 예술 발전에 결장

57) 『조선일보』 2011. 12. 02. 「[이 사람] 극단 갯돌 상임연출 손재오씨」.

58) 『조선일보』 2003. 10. 01. 「'연극인 100인 성명' 참여 차범석 예술원 회장 / '코드인사로 문화계 개혁되나'」.

적인 패인(敗因)이기 때문이죠.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남이 울타리를 넘어와 내 안방으로 오지 않을 까’ 경계하는 피해 의식만 키워온 건 아닌지. 이런 당파적 생각의 틀에서 대전환을 해서 모두들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이었다.⁵⁹⁾ 예술계 내부의 코드 갈등은 목포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예방 목포는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2007년 공공미술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외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에서 경합했던 민예총 회원들 간에 마찰이 생겼다. 이는 조직 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하여 분란을 일으켰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상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난 후인 2017년 6월 28일,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이 정책연대 연석회의를 열어, 창립 이후의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협치를 통해 예술문화계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목포에서도 이런 논의가 아쉽다. 물론 민예총 내부의 수습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

이미 1995년에 “지금 목포에는 예목회나 민예총 등이 있는데, 언젠가는 한 목소리, 한 가족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포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⁶⁰⁾ 라고 희망적 기대를 했었다. 지금 그 희망이 현실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5) 목포 예술의 희망

정부가 매년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펼치는 문화 한마당이 2010년에는 ‘우리 문화, 남도 문화 - 열고, 맺고, 풀다’라는 주제로 목포에서 열렸다. 광역단체 소재지가 아닌 중소 도시로는 목포가 처음이었다.⁶¹⁾ 지방에서 예술하기가 그만큼 인정을 받아서일까? 손색없이 잘 치러내 예방 목포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근태 화백이 2015년 11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갤러리에서 ‘2015 세계 인류의 꿈-사랑’을 주제로 유엔초청 전시회를 연 것도 기록할 만한 일이다. 유엔이 우리나라 서양화가를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1994년부터 목포 앞바다 작은 섬 고하도의 공생재활원에서 150여 명의 지적장애인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했다. 그때 지적장애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

59) 『조선일보』 2003. 10. 01. 「‘연극인 100인 성명’ 참여 차범석 예술원 회장 / ‘코드인사로 문화계 개혁되나’」.

60)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술 중흥을 위한 방안 특집좌담」, 『목포예총』7, 16쪽.

61) 『조선일보』 2010. 09. 03. 「‘2010 문화의달’ 큰잔치 목포서 펼친다」.

각해 그들에게 매달렸다고 한다.⁶²⁾ 인류가 함께 해야 할 다양한 삶의 하나인 장애인의 삶을 목포에서 찾아 세계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예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술인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창립한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 등과 같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지방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이지호 화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신선미술관’을 열었고, 정태관 화백이 목원동에 화가의 집을 조성하였는데 이 또한 지방에서 예술하기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8. 갯바위 문화의 거리

1990년대가 되면, 다방전시회는 이미 끝났고, 시민회관 무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무대나 전시 공간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995년에는 예총화랑과 MBC 전시장 두 곳 뿐이었다. 그나마 예총화랑은 비가 새는 등 전시장으론 문제가 많았다. 목포처럼 공연장이 한 곳도 없는 곳은 없어, 명실상부한 예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연장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런 불만은 10년 가까이 시간만 끌며 언제 완공될지 모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폭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왜 그 예향이라는 도시에 무대공연장이나 제대로 된 미술전시공간 하나가 없는가?”라는 한탄 끝에 ‘예향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하고 가난한 몰골’⁶³⁾이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1997년에는 개항 백주년을 맞았는데, 비록 늦었지만 때마침 문화예술회관도 개관하게 되자 제2의 개항 선언에 맞춰 예향 목포의 중흥을 꾀하려 하였다.

갯바위 문화의 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생활도자전시관, 목포문화관, 옥공예전시관 등과 함께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문화벨트’를 이룬다. 예술 단체들의 사무실도 문화예술회관 안에 모여 있어서 공연이나 전시나 회의도 매일 하다시피 하니 이곳 근처야말로 예향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해주는 곳이 되었다. 영산강과 목포항이 내려다보이는 입암산 계곡을 끼고 자리 잡은 이곳의 경관은 부러움을 살 지경이다.⁶⁴⁾

실제로 외부인의 눈에는 “목포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경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갯바위 문화거리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규모와 그 아름다움과 그 섬세한 구조는 청주에 옮겨놓고 싶을 만큼의 부러움이었습니다. 예향 목포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

62) 『조선일보』 2015. 12. 02.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 지적장애아 다양한 모습 그려 유엔서 초대전 연 김근태 화백」.

63) 차범석, 「목포문화협회 시대로 돌아가자」, 『목포예총』6, 한국예총목포지부, 1993, 25쪽.

64) 최일환, 「갯바위근처 -“갯바위로 가는 길이 바로 영혼 불멸의 동산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으면 한다.”-」, 『목포예술』16, 한국예총목포지부, 2008.

준 세계적인 명소로 손색이 없었습니다.”⁶⁵⁾라는 찬탄을 쏟아낼 만하였다. 그래서 ‘예향 목포는 그럴 짜한 외양을 갖춘 셈’이 되었다.

그러나 그 외양만큼 내실이 뒤따라주지 못하였다. 예총 사무실조차 문화예술회관에 순조롭게 입주할 수 없는 사정이 예향 목포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⁶⁶⁾ ‘투쟁’ 끝에 겨우 한 구석을 비집고 들어가는 웅색함을 면할 수 없었다. 모두 예향 목포의 현주소일 뿐이었다. 이처럼 남의 눈엔 한없이 부러운 목포 문화의 거리! 그런데 목포 시민들에게는 낯선 공간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왜 그럴까? 경관의 뛰어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실상 자가용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 주부,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 공간이다.⁶⁷⁾ 시설은 화려하나 외딴 섬 같은 공간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접근성 제로인 이곳에서의 문예 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나마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프로그램도 미비하다. 보통 시민들을 외면한 회관은 단지 하나 더 추가된 행정 기관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니 예총 소속 예술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2004년 부주산에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도 개관하였다. 목포의 공연, 전시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생활 속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높은 산 위에 있다. 삼학도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들어서면서 전시실도 추가되었다. 이 또한 대중들이 찾아가기엔 너무 멀다. 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미술관은 없다. 예향의 도시 목포에 걸맞은 품격 있는 미술관 건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9. 예향을 예향답게 ⁶⁸⁾

1) 함께 만드는 예향

김환기(1913~1974), 허건(1907~1987), 박화성(1903~1988), 차범석(1924~2006) 등 예향 목포 1세대를 이끌었던 이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이제 2세대, 3세대가 이끌어 가야 할 때이다.

목포의 예술은 시민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이를 얻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예술인 쪽에 있다. 그 다음 시민의 몫도 매우 크고 중요하다. 만일 예향이

65) 김동연(청주예총회장), 「축사」, 『목포예술』19, 한국예총목포지부, 2011.

66) 주정연, 「뜻으로 본 예향 100년」, 『목포예총소사』5, 한국예총목포지부, 1997.

67) 백선복, 「목포지역 문화예술공간의 현황과 과제」, 『목포예총』8, 한국예총목포지부, 1999, 53쪽.

68) 이 부분은 「21세기 목포예술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고석규, 「21세기 목포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목포예총』8, 한국예총목포지부, 1999)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목포시민들의 자긍심을 채워주었고 또 그로 인해 목포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면 시민 역시 내일의 위대한 예향 목포로 가는 길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 남이 이룬 영광을 누리기만 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영광이야말로 즐길 가치도 또 즐기는 기쁨도 풍성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인을 위한 개인 후원회의 조직을 적극 권장할 일이다.

문화 활동과 관련된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공헌’이 아닌 ‘사회 투자’라고 하지 않던가!⁶⁹⁾

목포예총인 스스로가 할 일을 다 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시민들은 예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총의 성장을 도와주어야하고, 따뜻한 정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각종문화 행사를 시민운동화 하여 문화행사를 통한 단합된 시민정신을 길러야겠습니다. 시민정신의 집결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판으로 배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겉치레나 실적위주의 행사에서 시민의 심금을 맞잡을 수 있는 내실 있는 문화행사의 준비가 필요하며 시민의 동참이 크게 요구됩니다.⁷⁰⁾

라는 제언은 지금도 여전히 옳은 지적이다.

“목포시민들은 …… ‘목포예술’이라는 꽃을 피게 하기 위하여 물도 주며 가꾸어 주면서 ‘목포예술’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못하면서 향기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⁷¹⁾ 라는 말은 시민들에 대한 예술인들의 솔직한 요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관객이 없는 예술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관객이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린 채 자기만족에 빠진다면 큰 잘못이다. 뭔가 대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공연장이나 전시행사에 관중의 호응이 아직 작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포와 같이 옆드르면 코 닿는 땅땸기 위에서 전시회를 참관하고 있는 문인이 없고 음악회에서 만날 수 있는 화가가 드물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⁷²⁾

라는 말처럼 예술인들의 자각과 노력이 우선해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6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소식』(1997. 11·12.), 1997, 6쪽.

70) 윤병오(목포시교육장), 「목포예총에 바란다」, 『목포예총』2, 한국예총목포지부, 1986.

71) 한국예총목포지부, 『목포예총』창간호, 63쪽.

72) 주정연, 「예향 문인의 주소」, 『목포예총』8, 한국예총목포지부, 1999, 69쪽.

2) '생활이 곧 문화'인 예향 목포

“문화의 꽃은 경제를 만나야 피울 수 있다.”고 한다. 분명 예술과 경제는 흥망의 동반자이다. 1960년대 언저리까지는 6대 도시의 여맥이 남아 있어 그런지 생활 속에 젖어드는 예술로서는 차라리 전성기였다. 그러나 그 후 호남에 대한 차별 속에서 경제가 떨어지는 만큼 목포의 예술도 침체되었다. 제2개항 선언에 맞추어 맞은 대통령의 탄생, 그리고 도청 이전 등으로 전환기를 맞는 듯했지만,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만 기다릴 수는 없다.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예향 목포의 저력을 살려 문화의 꽃을 피워야 한다. 어떤 꽃을 피게 할지는 전적으로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 그리고 매개자의 손에 달려 있다. 예술인들의 결집, 시민들의 후원, 관의 이해는 목포 예술진흥의 3대 조건이다. 이를 토대로 '생활이 곧 문화'인 예향 목포를 이루어 내면 그 든든한 기반은 완성될 것이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5월 29일, 목포 시내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송광선이 부르는 「부용산 오리길에」'라는 아주 특별하고 인상적인 미니음악회가 열렸다.⁷³⁾ 이 음악회를 최성각 소설가는 「'부용산'을 아십니까」라는 신문 기고에서 “일찍이 이 땅에 이토록 사람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음악회가 있었던가 싶었다.”라는 말로 그 인상을 적었다. 지금은 칠순의 할머니가 되어 버린 당시의 소녀들이 벽찬 감격으로 연이어 「부용산 오리길에」 노래를 불러갈 때, 구석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의 눈은 예향 목포의 숨은 저력을 보는 듯했다. 예향 목포의 기반, 그것은 바로 생활 속에 들어 있었다. 예술문화 활성화의 큰 기반이 '생활이 곧 문화'라는 명제 속에 담겨 있다면 우리 목포는 이미 전통 속에 그 큰 기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향이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듯이 예술이 생활 속에 젖어들어 생활의 일부가 될 때 목포 예술의 중흥은 반드시 올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 가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목포의 색깔을 지닌 목포의 예술문화가 한국예술문화의 일번지가 될 날을 기다려 본다.

73) '부용산'은 국어 교사인 박기동 선생이 고향 벌교에서 어린 나이에 숨진 자신의 여동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詩)였다. 박기동 선생이 목포 항도여중에 있던 1947년, 마침 같은 학교 음악 교사였던 안성현 선생이 자신의 제자 여학생이 요절하자 시 '부용산'에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었다.